

# 도시계획동향 >>>>

김흥태, 임병호 / 대전발전연구원

## 대전시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계획 추진

대전시에서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지정, 관리해 온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, 국토계획법·경관법 및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고자 한다.

대전시의 최고고도지구는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보문산공원의 경우 전체 4,218,000㎡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, 이중 2.6%는 4층 이하, 60.1%는 5층 이하, 33.0%는 8층 이하 그리고 4.3%는 10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. 월평공원의 경우 전체 3,979,600㎡의 42.4%는 5층

이하, 51.9%는 8층 이하, 5.8%는 10층 이하의 고도규제를 받고 있다.

현재 보문산 최고고도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예정지구 30개소에 대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나,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할 경우 그나마 확보해 온 조망축의 상실과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시 되고 있다.

이와 같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최고고도지구 당초 지정목적인 도시경관의 적절한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·시행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할 방침이다.

